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엔-원 경계가 맞물리며 소폭 하락마감
------	---------------------------------

- 전일 달러-원 환율은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엔-원 재정환율 하락에 대한 당국 개입 경계심이 맞물리며 소폭 하락 마감했다.
- 이날 달러화는 개장 초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역외 NDF환율 하락을 반영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 출발했다. 개장가격이 낮아지자 달러화는 1,095원선 하향 시도에 나섰고,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매도에 나섰다. 그러나 1,090원대 초반에서 엔-원 재정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당국 개입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레벨이 지지됐다. 따라서 이날 달러화는 전일 대비 2.6원 하락한 1,094.5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단기 성향 물량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일대비 4.23포인트 하락한 1,961.48로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97.00	1097.50	1092.20	1094.50	1094.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08.13	1115.74	1099.70	1101.83	
금일 전망	외환당국의 엔저 방어에 대한 경계심으로 1,090원대 등락예상				

- 금일 달러-원 환율은 엔-원 재정환율이 장중 1,1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외환당국의 엔저 방어에 대한 경계심으로 1,090원대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 엔-원 재정환율이 100엔당 1,099.9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에따른 외환당국의 엔저 방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은 강도 높은 매수개입보다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달러화 반등폭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환시에서 이날 달러화는 1,090원대에서 주거래 가격대를 나타내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달러화 반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변수가 거의 없어 오전 중 호주 RBA의 금리 결정에 시장 시선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 뉴욕증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혼조를 보였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90.00 ~ 110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88.18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상승 ■ 美 다우지수 : 14968.89, -5.07p(-0.0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3.3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93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